

교통사고 줄고 사망자 증가...전동킥보드 사고 급증

도로교통공단 최근 3년 광주 교통사고 분석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최근 3년새 230건에 달했고 광주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으나 사망자, 노인 사고 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도로교통공단은 28일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광주에서는 2020년 38건, 2021년 100건, 2022년 92건의 PM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2020년에 1명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2020년 41명, 2021년 116명, 2022년 106명 등이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급증했고 교통 법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230건...법규 미준수 등 안전의식 실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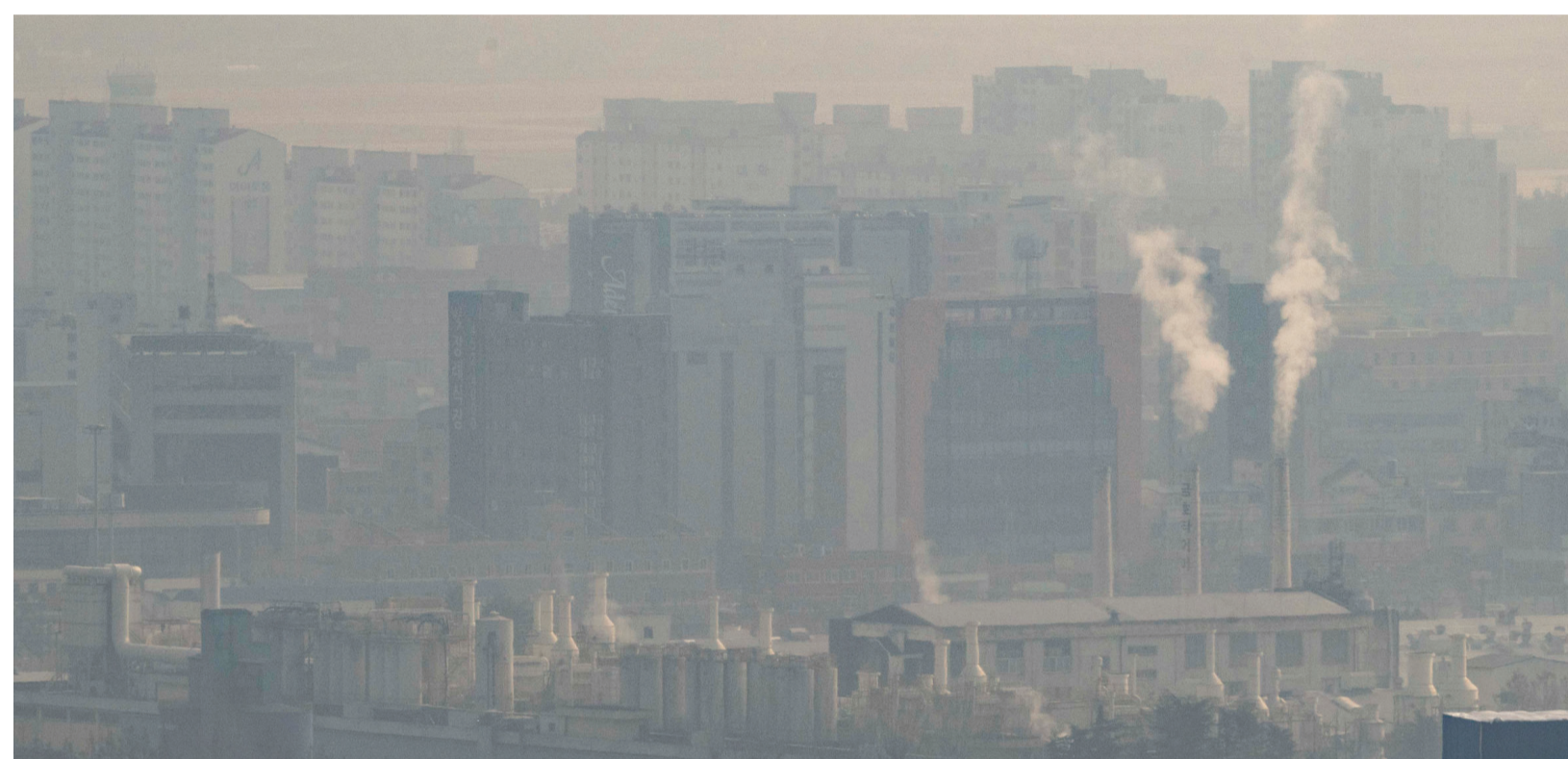
2022년 교통사고 7076건...시 교통문화지수 'C등급' 머물러

규 미준수 등 안전의식이 실종된 것도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5018건의 PM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광주에서는 같은 기간 노인 교통사고 건수가 늘었다. 광주시의 TAAS 분석 결과 2022년 광주에서는 총 707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전년(7507건)에 비해 소폭 줄었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2021년 49명→2022년 58명으로 증가했다. 차대 인명 사고 사망자는 2021년 19건→2022년 25건으로 31.6% 증가했으며, 차대 차 사고 사망자는 2021년 22건→2022년 27건으로 22.7% 증가했다. 특히 노인(보행자) 교통사고가 2021년 281건에서 2022년 336건으로 증가했다. 노인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15명에서 2022년 16명으로 1명 늘었으며, 부상자 수는 2021년 270명→2022년 324명으로 54명 증가했다.

교통사고 발생 요인별로는 이륜차 사고 증가폭이 컸다. 2021년 531건이던 이륜차 사고는 2022년 584건으로 10% 늘었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사망자 건수도 증가했는데, 버스 사망자는 2021년 1건→2022년 3건, 택시 사망자는 2021년 1건→2022년 5건으로 뛰었다. 교통법규 위반발생건수를 보면 안전운전 불이행(3935건)이 가장 높았고 신호위반(742건), 중앙선침범(230건), 보호차보호 불이행(203건), 과속(25건) 순으로 높았다. 교통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시간은 오후 4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전체 사고 7076건 중 28.4%인 2012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 사망자는 20세 미만(1명→4명), 60세 이상(2명→8명) 등으로 증가해 노인 교통사고 사

망률이 전년 대비 4배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22년 교통문화지수 81.64점을 받아 C등급에 머물렀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9위에 머무르는 수치로, 전년(2021년) 2위(83.97점·A등급)에 비해 7계단 떨어진 수치다. 교통안전지수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운전행태, 보행행태, 교통안전 등 3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2022년도 광주 교통문화지수는 운전행태 46.57점(55점 만점), 교통안전 18.42점(25점 만점), 보행행태 16.65점(20점 만점) 등을 기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미세먼지 가득...공장 지대 보는 듯 전국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공기질이 좋지 못한 28일 광주시 광산구 어등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시야가 고르지 못하고 흐리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정부, 여순사건 진상조사기획단 교체해야”

유족들, 도청앞서 기자회견

여순사건 기획단 재구성 촉구 범도민연대(이하 연대)는 28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기획단원을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여순항쟁유족총연합회를 비롯한 여수·순천·광양·고흥·구례·보성 등 전남 동부 여순사건 유족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 62개 단체들이 모여 만든 단체다. 연대는 “정부는 기획단을 해체,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인사들로 전면 재구성하고 여순사건을 연구한 학자와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라”

고 요구했다. 단체는 김영록 도지사에게도 “여순사건위원회의 중앙위원이자, 실무위원으로서 기획단 구성에 대한 지역 여론을 전달한 적이 없다”며 “도지사로서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대한 도민의 열망을 무시하고 책임을 방기한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기획단 명단을 발표했다. 여순사건 유족 등은 15명의 기획단원 대부분이 뉴라이트 활동을 했거나 역사 왜곡에 앞장선 적 있다며 반발했다. 또한 여순사건을 전문적으로 연구해 온 학계 및 전문가 단원이 한 명도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검찰, 여인숙 업주살해범 1심 징역 23년형에 항소

“징역 30년 준하는 중형 필요”

1심 법원이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살인·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2일 오전 11시 30분께 광주시 동구 한 여인숙 1층에 있는 부엌에서 여인숙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송두리째 무너졌다”며 “합당한 응보와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불가피하다”고 판

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태도를 비난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에 대한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항소 이유로 들었다. 또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는 가석방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0년에 준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1심 판결 선고형이 충분치 않기에 더 무거운 징역형의 선고를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현대삼호중 중대재해 예방대책 수립하라”

금속노조 광주지부·유가족, 장례 미루고 진상규명 요구 나서

영암군 삼호읍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용접작업 중 숨진 하청 노동자의 유족이 장례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은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함께 28일 광주지방방과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과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소속인 A(48)씨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현대삼호중공업 2도크 탱크 바닥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용접사가 ‘아르곤

가스 용량이 부족하다. 가스 게이지를 틀어달라’고 하자 탱크 바닥으로 내려갔다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사고현장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사고 현장에서 아르곤 가스 호스와 배관 사이를 밀봉한 종이테이프도 헐거워져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A씨 부검결과도 질식사료로 나왔다. 노조는 “올해에만 현대삼호중공업에서 노동자 3명이 숨졌다”면서 “조선업종의 고질적 문제인 다단계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월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하던 노동자가 뇌사판정을 받고 2주 후에 숨져 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아르곤 가스 작업 표준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내부 작업실 가스 잔류 여부 측정 후 작업 및 환기’, ‘작업자 산소농도 측정기 필수 소지’ 등이 지켜지지 않아 또다시 A씨가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A씨의 동생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가장이었던 형은 생계를 위해 대학 진학도 미루고 20여 년을 조선업에 매진했다”며 “9살, 6살난 딸과 돌도 지나지 않은 아들을 두고 숨진 형의 죽음에 그 누구도 사고와 책임을 지려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사랑과 감사의 69년
1954-2023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운 박사

2024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 신·편입생모집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 곳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그대를 기다립니다!

학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학 과	모집인원
인문사회	신 학 과	○
	한국어교육학과	○
	복지상담융합학부	○
사범	유아교육과	○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
총 계		○○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 3(수) ~ 6(토) · 전형일: 2024. 1. 12(금)

학부 편입모집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정원외
인문	신 학 과	○○	○
	한국어교육학과	○	
사회	복지상담융합학부	○○	○
사범	유아교육과	○	○
예능	음악학부	○○	

▶ 원서접수: 2024. 1. 11(목) ~ 24(수)
전형일: 2024. 1. 26(금) 오후 2시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1. 3(수) ~ 6(토)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